

# 운동주 작품 속 시어 시작예술로 재탄생

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비나 미술관, '운동주가 사랑한 한글'展 8월 10일~9월 10일 개최

일제강점기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특유의 감수성과 삶에 대한 고뇌, 독립에 대한 소망을 아름다게 서정적인 시어(詩語)를 통해 표현한 민족시인 운동주의 이야기 펼쳐진다.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따르면 기획전 시로 마련한 운동주가 사랑한 한글이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당 전시장 2층(갤러리 R)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2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사비나미술관이 주관한다.

'운동주가 사랑한 한글'展은 한글 단어에 작가의 예술적 창의성을 결합, 한글의 새로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다.

특히 이번엔 전시되는 작품들은 작가들이 운동주가 자주 사용했던 시어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해석해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사비나미술관이 운동주의 시 124편을 운동주기념사업회와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동주가 자주 사용했던 시어 20개를 추출한 뒤, 작가들이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해 추출된 시어들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전시공간은 운동주의 대표적 시로 손꼽히는 '서시(序詩)'와 '별 헤는 밤'을 키워드로 구성, 참여작가 제각각의 해석과 독특한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전시기간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한글모양의 자석과 과자류, 문구류 등에 철사를 얹어 작품을 만드는 '벤트아트' 체험 프로그램과 작품 속 운동주의 시어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70-78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운동주가 사랑한 한글'展 포스터

# 익산시 가람박물관, 초가집 만들기 체험

15일 광복절 이병기 선생 생가 '수우재' 이야기 들려주고 우드퍼즐 조립

가람박물관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 '수우재'를 우드소재로 '초가집 만들기' 체험을 선보인다.

광복절에 진행되는 초가집 만들기 체험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인 수우재 이야기를 들려주고 초가집 모양의 우드퍼즐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가람박물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오는 14일 월요일까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람박물관 초가집 만들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borama0224@korea.kr)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로 알려진 수우재(守慰齋)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로, 가람박물관과 함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수우재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려 했던 삶의 뜻이 담긴 이름으로, 가람 이병기 선생은 1891년 이곳에서 태어나 1968년 작고했다. 가람박물관 관계자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우



리말을 보존하려 노력한 독립유공자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삶이 담긴 초가집 수우재(守慰齋)의 전통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소박해 보이는 초가집에 담긴 선생의 겸손한 삶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람박물관은 현대시조와 국문학을 대표하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17년에 개관했으며, 상설전시를 통해 시조 작품과 시조 혁신 운동, 고전의 발굴과 연구,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익산=이재준 기자

# 문화도시 조성 위한 문화창업 프로젝트 '본격화'

군산문화도시센터, 문화창업 인식제고 워크숍 개최

군산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군산문화도시센터가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새롭게 문을 연 JB문화공간(군산)에서 '문화공유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창업 인식제고 워크숍 '문화창업과 문화도시, 스케일업!'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창업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군산시민에게 최신 문화창업 트렌드와 미래, 다양한 문화창업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을 생생하게 전달해, 문화창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주)위키피아 대표를 역임한 최병희 K-ICT창업멘토링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문화창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내용을 나눴다.

토론 사회자로 나서는 임은아 대표(문화매개 기업 호미)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화보 촬영과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한옥복합문화공간 '일투의우 달보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문화창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연사로 참여하는 문화창업가 6인 중 지역설화



를 바탕으로 AR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주렁주렁스튜디오 주수현 대표는 "2022 대한민국관광 공모전" 관광기념품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화숙 군산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창업은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 사회의 문화적 공유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라며 "그 동안 군산문화도시센터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조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문화창업에 대한 군산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기반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문화창업의 선두 도시로 지역과 사회의 문화적 공유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도시센터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unsanculturecenter>)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주한벽문화관, 미당창극 공연 할인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오는 12~26일 토요일 3회차 미당창극 공연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통예술과 현대적 색채를 결합한 창작 초연 창극인 전주브랜드공연 미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행사다.

지난 5월 27일 전주한벽문화관 전통혼례청에서 개막한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전라감찰사와 전주8경, 선자청 등 전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8월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 좌석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공연 관람료는 전석 7,500원이며, 예매는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기업 회복지원 추진 협약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 전북 관광기업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최종 3개 기업을 선정,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폐업 이력이 있는 관광분야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 3년 미만 사업자 및 타 업종에서 관광분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재창업 선정 아이템으로는 '투어사람'의 책속의 인상적인 글귀를 캘리그래피로 써보는 일데이 클래스 문화관 여행투어 개발, '주식회사 향유'의 관광과 예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유한화사 디파크'의 전북의 다양한 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한 영상 제작 및 판매 플랫폼 개발 등이 있다.



한편 선정된 기업에는 협약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으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더불어 창업, 경영 실무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이들 사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10집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10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와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담론 선도를 지향하며, 탈 유교 사회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씩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제10집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기획논문 4편과 일반논문 6편, 총 10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록됐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현재 '공존의 인간학' 11집 발간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성과를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aac.kr/ksk>)에서도 원문을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